선택 4·11 D-12

이곳이 뜨겁다 ▶ 광주 동구

"무소속 많아 헷갈려…인물 보고 찍겠다"

■ 민심 들어보니

이름	구봉우(63·선)	김관희(29·통)	양형일(61·무)	이병훈(55·무)	박현(59·무)	박동수(46·무)	박주선(62·무)	김강열(50·무)
기호	3	4	6	7	8	9	10	11
주요 경력	전) 광주시청 근무	광주청년센터 정책국장	전) 조선대 총장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전) 청와대 공보국장	사) 빛고을 나눔연대 동구지회 부회장	전) 민주당 최고위원(2회)	전)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주요 공약	·광주시 재개발 재건축 협의회 구성 ·재래시장·골목상권 보호육성 ·아파트형 공장유치	·청년실업자 취업수당 지급 ·보육에서 노후까지 무상 ·일하는 여성시대 만들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적극추진 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청소년 복지 구현 ·재개발·재건축	·동구 아시아 문화경제 1번지 건설 ·새로운 정치 실현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조성 추진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조선대시립대 추진 ·도심상권 회복	·정치개혁 공론화 ·상위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동구 재창조 프로젝트 수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사업 활성화 ·재개발사업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 ·골목상권 보호	·문화관광타운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청년 실업해결 ·도심재생, 재래시장 활성화

※ 선=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무=무소속

"호남정치 1번지"로 불리며 정치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광주 동구 민심이 흉흉하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유권자는 노골적으로 혐오감까지 드러냈다.

동구 계림1동 주민 김영심(여·63)씨는 "선거판에 사람 죽은 거 처음 봤네.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이번엔 아예 투표를 안 할 생각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도 없다"며 "이제 정치든, 선거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과 관련한 전직 동장 '투신자살' 사건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구속자 숫자가 유태명 동구청장을 포함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동 조모(52·자영업)씨는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구속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냐" 며"정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잘못하니 동네에 선거 범죄자만 양성하는 꼴이 됐다"며 혀를 찼다.

반면, 박주선 후보의 지지자라는 박모(58·자영업)씨는 "투신 자살 사건으로 상대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박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사실상 전직 동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제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산동 정주영(여·64)씨는 "민주당 후보도 없고, 무소속 후보가 너무 많아 헷갈려 투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엔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꼭 인물보고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가 위치한 동구의 20대 젊은층들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찍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미(여·20)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잘 살려 청년실업 문제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청년실업 해소와 반값 등록금 등 대학생들에게 꼭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골라 찍겠다"고 밝혔다.

'공천 잡음'으로 유독 시끄러웠던 만큼 민주통합당에 대한 반발도 컸다.주민 최도훈(44·동명동)씨는 "통합 이후 민주통합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경선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공천도 시끄럽고, 많은 실망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 민주계 후보를 잘 살펴본 뒤 후보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투표 전날까지 전화 지지호소 가능
현수막에 안철수 사진도 걸 수 있어

29일부터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선거운동의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 전일인 4월10일까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가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와 상관없는 체육행사·산악회 모임·친목단체 야유회 등은 개최할 수 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 '인증샷' 게재도 허용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한 무소속 후보자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한 것과 관련,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현수막이나 명함에 기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혐오 확산…'구태청산' 이슈로

■ 공약과 쟁점

광주 동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구(舊) 도심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 추진이다. 여기에 대인·학동 등 대형 재래시장과 충장로 등 도심 상권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심상권 회복 등도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총선 주요 공약에 도심 재생 및 재개발·재건축,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심상권 회복 등을 포함시켰다.

유권자들은 공약의 세부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거 초반, 동구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네 가지 주요 핵심 공약을 어떤 인물이 잘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였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전직 동장 '투신자살'로 인해 광주 동구 선거구의 쟁점은 선거 막판 금권·관권선거 등 '구태정치 청산'으로 갑자기 바뀌는 흐름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금권·관권 선거로 실추된 동구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명선거·준법선거·클린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들은 "사망사고와 혼탁선거에 책임을 지고 민주통합당이 무공천을 약속했음에도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양형일 선두…박주선·이병훈 추격

■ 판세 및 변수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 여파로 인해 전·현직 국회의원간 '리턴매치' 구도가 흔들리면서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선거 초반 현역 국회의원인 박주선 후보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형일 후보 간에 '박빙 승부'가 펼쳐졌지만, 최근에는 양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 가고 있는 판세다. 무소속 이병훈 후보도 꾸준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두 후보를 맹렬한 기세로 쫓는 형국이다.

지난 24일~25일 진행된 광주일보 여론조사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 지지율은 무소속 양형일 후보 32.4%, 무소속 박주선 25.6%, 무소속 이병훈 16.3%,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 10.1%, 무소속 김강열 후보 3.2%, 무소속 박 현 후보 2.7%, 자유선진당 1.8%, 무소속 박동수 1.6% 순이었다.

동구는 사실상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두 후보가 선거구 내 조직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 선거 초반부터 '호각지세'(互角之勢)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사건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사건 이후 1개월 가까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탓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 후보는 민심을 고려, 꾸준히 대민접촉을 늘려가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후보는 이 2명의 후보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민심을 파고들며 전세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후보로 나선 김강열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데다 인지도가 낮아 지지율이 아직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선거 막판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등에 업을 경우 선전이 예상된다.

박 현 후보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이 선두권"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맹추격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변수는 역시 '투신 자살' 사건의 여파다. 유태명 동구청장과 주요 사조직 간부, 박주선 의원 보좌관 등의 잇단 구속으로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